



‘호프 온 더 스트리트’의 메인 트레일러 스틸컷. 사진=빅히트뮤직

춤 배우고 소통하는 여정 “심장이 뛰다”

데뷔 12년 차 BTS 제이홉
서울·뉴욕·파리·오사카 등 춤 탐방
다큐멘터리 시리즈 28일 첫 공개
29일에는 스페셜 앨범 전 세계 발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다큐멘터리 시리즈 ‘호프 온 더 스트리트(HOPE ON THE STREET)’의 메인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1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제이홉은 공식 SNS에 게재된 트레일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춤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제이홉은 “춤으로 시작했고, 그 춤으로부터 많은 것이 파생됐다”며 “궁금한 거다. 제가 어떤 춤을 찾고, 어떤 것이 나의 뿌리였다. 내가 꿈꾸는 미래는 뭐지…”라고 기

획의도를 밝혔다. ‘호프 온 더 스트리트’는 올해로 데뷔 12년 차를 맞은 제이홉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춤을 매개로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일본 오사카,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한국의 서울과 광주 등지로 춤 탐방을 떠난 제이홉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제이홉은 각 도시에서 팝핀(Popping), 하우스(House), 힙합(Hiphop), 로킹(Locking) 등 여러 스트리트 댄스 분야에서 활약 중인 댄서들과 직접 만났다. 그는 거리에서 춤으로 소통하고 배움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심장이 뛰다. 감회가 너무 새롭다”며 “춤뿐만 아니라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배우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결국 노래와 춤으로 답이 나오더라”라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

는 것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춤추면…”이라며 춤을 향한 애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드러냈다.

트레일러에는 제이홉의 프리스타일 댄스와 각 도시의 아름다운 경치가 담겨 본편의 기대감을 키웠다.

‘호프 온 더 스트리트’의 첫 화는 오는 28일 0시 공개된다. 영상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글로벌 OTT 프라임 비디오로 전 세계 240개국·지역에서 시청 가능하다.

다큐멘터리 첫 화 공개 다음 날인 29일 오후 1시에는 스페셜 앨범 ‘호프 온 더 스트리트 VOL.1’이 전 세계에서 동시 발매된다. 신보 타이틀곡 ‘뉴런(NEURON-with 개코, 윤미래)’은 제이홉의 음악적 뿌리와 삶의 동기, 새로운 출발의 기대를 담은 곡이다. 김민정 기자

글로벌 K-팝 차트

순위	곡명	가수
1	EASY	르세라핌
2	밤양갱	비비
3	Smart	르세라핌
4	Standing Next to You	정국
5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TWS
6	Perfect Night	르세라핌
7	Seven(feat. Latto)-Explicit Ver.	정국
8	Drama	에스파
9	Love wins all	아이유
10	Like Crazy	지민

3월 3-9일 집계/싸클차트 제공

연애상담소 / 데이트할 때마다 지각하는데 어떻게 하죠?

시간 계산 어떻게 하는지... 과정 살펴보고 빠트린 부분 찾아 알려줘야

Q 데이트할 때마다 상대가 늦게 나와요. 많이 늦는 건 아니지만 매번 10분 정도 늦고, 가끔 20분을 넘기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 늦게 왔다거나 제시 시간에 도착했는데 출구에서 헤맸다고 하기 일쑤입니다. 이제 좀 짜증이 내네요. 화를 내도 고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A 안 좋은 버릇을 고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약속시간에 늦는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는 지각이 대수롭지 않고, 고치려는 의지도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옆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도 쉬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늘 지각하는 상대를 마주하는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상황이면 안 이럴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를 소홀히 하는 기분도 듭니다. 회사에는 지각하지 않으면서 데이트 때 늦게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 우선순위가 엇보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거야 회사는 지각하면 잘리니까. 데이트는 늦는다고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니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에 늦었을 때 체감할 수 있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어서 여러 번 쓰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지각하는 원인을 분석해 문제를 고쳐 보는 것입니다. 자주 늦는 사람들은 시간 계산을 할 때 한두 가지를 빼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앱에서 A역에서 B역까지 40분 걸린다고 나오면 집에서 A역까지 가는 시간, A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B역에 도착해 약속 장소로 가는 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이 중 한두 가지를 빠트린 채 계산하면 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A역에서 B역까지 40분 걸리니까 40분 전 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간혹 차를 가져 오는 분들도 차로 50분이라고 하면 주차장



까지 가는 시간, 주차하는 시간을 빼고 계산해 지각하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에 50분이 걸린다고 나오면 약속 장소에 도착해 주차하는 시간, 혹시 교통상황에 따라 길이 막힐 가능성 등을 더해야 하는데 50분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데이트엔 늦으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지각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30분, 1시간 먼저 도착해 준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에서 몇 가지를 빠트렸어도 안 늦었던 겁니다. 중요한 일에는 30분, 1시간 정도 서두르는 것처럼 데이트도 무조

건 30분 빨리 나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이동할 때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서 빠트린 부분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3-5분가량 걸릴 수 있는데, 그것을 계산에서 빠트렸다면 “지하철이 딱 맞춰 오는 건 아니니 앞으로는 5분 일찍 나와”라고 알려 주면 됩니다. 상대가 여자분이면 신발에 따라 걷는 속도에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지하철역까지 5분 걸렸다면 하이힐을 신었을 때는 10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5분 더 빨리 나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쪼개 살펴보면 상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필자 최미정 라라연구소 대표는 심리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연애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애심리학자로 『본의 아니게 연애 공백기』를 썼다.